

2023년 예술-기술 매칭 사업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예술-기술 매칭 사업(기업, 예술인(단체))
- 회의일시
 - [1단계-기업] 서류심의 : 2023년 5월 9일(화) 9:30~13:00
 - [2단계-예술인(단체)] 서류심의 : 2023년 7월 4일(화) 14:00~18:00
 - [3단계-예술인(단체)+기업 합동] PT심의 : 2023년 7월 11일(화) ~ 7월 13일(목) 9:00~18:00, 7월 14일(금) 10:00~14:00
- 회의장소 : 비대면 화상회의

<2023년 예술-기술 매칭 사업>은 예술활동에 기술을 융합하고자 하는 예술인을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예술인과 매칭을 지원하여 예술-기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22년 시범 추진 이후 2023년 새롭게 기술, 장소, 장비 등으로 영역을 확대한 ‘바우처 형식’ 사업입니다. 2022년 공모 결과, 예술인들의 무대가 온라인과 메타버스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에서 폭넓은 기술 외에도 장소, 장비까지 매칭 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심의는 예술-기술 융합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총 5명의 통합심의위원이 담당하였으며, 예술인(단체)과 기술기업이 함께 하는 ‘매칭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 심의위원군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 [1단계-기업], [2단계-예술인(단체)] 서류심의와 [3단계-예술인(단체)+기업 합동] PT심의의 평가기준 일관성 확보를 위해 연속 심의하였습니다.

[1단계-기업]은 신청서 104건 중 행정결격 8건을 제외한 96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심의대상은, ‘유형1-기술’ 64건, ‘유형2-장소’ 14건, ‘유형2-장비’ 18건이었습니다. ‘사업 취지 적합성(20%), 서비스 품질 및 수행계획(50%), 기업 수행역량(30%)’의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서류에 대한 온라인 전수 검토 및 개별 사전평가를 진행하였고, 최종 37개 기업, 50개의 서비스를 선정하였습니다.

[2단계-예술인(단체)]은 신청서 266건 중 행정결격 6건을 제외한 260건을 대상으로 서류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심의대상은 ‘유형1-기술’ 227건, ‘유형2-장소’ 20건, ‘유형2-장비’ 13건이었습니다. ‘예술활동 우수성(40%), 사업취지 적합성(30%), 수행계획 충실성(30%)’의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온라인 전수검토 및 개별 사전평가를 진행하였고 ‘유형1-기술’ 83건, ‘유형2-장소’ 9건, ‘유형2-장비’ 9건

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유형1-기술’은 [3단계-예술인(단체)+기업 합동] PT심의를 통해 ‘사업취지 적합성(30%), 수행계획 충실성(50%), 예술현장 파급력(20%)’을 심의기준으로 심의위원 간 심층적인 토의와 평가를 거쳐 68건의 ‘유형1-기술’ 지원 대상을 포함한 총 86건의 지원 대상과 20억원의 지원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 일동은 예술인은 기술을 활용해 창작 영역을 확대하거나 예술적 완성도를 기대하고, 기술 기업에게는 예술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시장개척과 R&D 성과 등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최종 합동 PT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술인들과 소통한 기술 매칭 기업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며, 기술 활용 역량 강화나 기술 융합 예술 활동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세부적인 계획이 제시되었는지를 통해 충실성과 구체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예술인들의 니즈를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나, 자발적인 내부 동기에 의한 기술 활용이 아닌, 트렌드에 편승하는 일시적 기술 활용은 지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3년 예술-기술 매칭 사업 공모를 신규 추진한 결과,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를 어려워하던 순수예술 분야, 특히 원로 예술가들의 지원이 늘어난 것을 통해 기술 기반 예술 활동의 진입장벽을 낮췄고, 장르적 다양성이 확보된 것은 고무적이었습니다. 다년간의 아트앤테크와 예술기술 융합사업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예술가들이 동시대 예술의 확장성을 넓히는 방향성, 필요성, 인식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술 매칭 기업이 다채로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전 매칭데이를 통한 충분한 소통과 이해가 전제되는 협의의 시간이 바탕이 된 것이 현장 예술인들의 지원신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장르적으로는 연극이나 공연 분야에서는 무대기술로서의 XR 스튜디오나 프로젝션 맵핑 등의 영상 기술, 조각과 설치 분야에서는 3D모델링과 프린팅 기술, 그리고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가상갤러리 등의 가상 기술, 무용 분야에 있어서는 모션 캡처 기술, 음악은 이머시브 사운드와 같은 입체 음향 등을 지원하면서 예술 분야별로 기술 선호도가 나타나면서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본 사업의 심의위원 일동은 지원해주신 기업과 예술인(단체)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예술 기술 융합지원사업에 지원신청이 지속 늘어나는 만큼 올해도 예술인과 기술기업과의 상생 협력 모델이 좋은 선례로 예술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성과들을 기대합니다. 기업은 예술인의 의도를 온전히 파악하고,

예술인(단체)는 필요한 기술을 전적으로 기술 매칭기업에게 의지하기보다 함께 창작의 과정에서 소통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예술인은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매칭 기업은 예술인의 창의성을 통해 새로운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2023년 예술-기술 매칭 사업 심의위원 일동